

말씀의 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에베소서 6:1~3>

오늘 아버지주일을 맞이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경받고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또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2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격과 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할 부모님을 두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처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또, 신뢰가 무엇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아가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엡 6:1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진 사람은, 모든 관계를 형성함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고 공경하는 인격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에도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부모와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친밀함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역기능 가정 속에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오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나도 모르는 감정의 앙금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감성과 인격이 살아나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인격과 감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도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부모,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대상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1~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제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연결해주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뤄질 바탕을 갖는 것이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보다 축복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공경보다는 원망과 과거의 상처로 인한 거리낌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후, 부모가 나에게 섭섭히 대하고 상처로 인한 거리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중심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다 성숙한 인격과 신앙 안에서 다시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바라보면, 섭섭함보다는 이해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시 27: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들을 신앙안에서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그의 이름을 통해 그가 ‘아버지 집에서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고마운 것만, 사랑해 주신 것만, 좋은 추억만 피어오르시길 축복합니다. 부모

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스러워질 때부터 우리의 인격과 감성은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마음은 뜨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사랑의 시작이십니다.

요일 4:7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 7: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물겨운 아버지의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가정의 달, 5월의 어느 토요일 밤, 제주도 민속촌 입구 돌 의자에 저녁부터 밤 12시까지 눈이 빠지게 아들 내외를 기다리고 있는 82세 된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몇 차례 그곳을 순시하면서 한 밤중이 되도록 꼼짝 않고 계속 앉아 있는 그 할머니를 본 경찰관은 파출소로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본인의 이름과 살고 있는 집 주소와 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무리 물어도 “서울에 산다”는 말 이외에는 일체 하지 않으셨답니다. “선물 사 올 터이니 이곳에 잠시만 앉아 계시라”던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관광을 시켜 준다고 이곳에 데리고 와서 버리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도 혹 아들에게 창피와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애써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를 보는 듯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주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 같이 죄인인 나를 위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수없이 믿음을 버리고 배신했던 우리를 위해, 묵묵히 아들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회복되어 믿음의 친밀함이 온전히 세워지는 주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 5월 8일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5. 15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사도행전 2:1~4/ 2:37~42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성령님을 사모하라"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적 삶이 있는
DURANNO CHURCH
두란노 교회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